

2024년 8월 중국 무역 동향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2024. 9. 20(금)

T. (86-10) 6505-2671/3 / E-mail : beijingk@kita.net

◎ 요약

- (수출) 8월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8.7% 증가
 - 10대 수출품목 중 7개 품목의 1~8월 누계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
 - 수출증감률은 시중에측치(6.5%)를 상회했으며 수출액은 전월 대비 증가
 - 반도체, 가전제품, 자동차 등 품목 수출은 강세, 의류 및 부자재 수출은 약세
- (수입) 8월 중국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0.5% 증가
 - 10대 수입품목 중 6개 품목의 1~8월 누계수입액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
 - 수입증감률은 시중에측치(2%)를 하회했으며 수입액은 전월 대비 증가
 - 8월 무역수지는 약 910억 2천만 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대비 35.4% 큰 폭 증가

1 수출입 동향

- 8월 수출액은 8.7% 증가한 3,086억 5천만 달러(한화 약 411조 원), 수입액은 0.5% 증가한 2,176억 3천만 달러(약 290조 원), 무역수지는 약 910억 2천만 달러(약 121조 원) 흑자로 전년 동월대비 35.4% 큰 폭 증가
 - 수출은 5개월 연속, 수입은 2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며, 흑자 규모는 전월 대비 확대

< 중국의 수출입 추이 >

(단위: 억 달러, %)

구 분	2021년	2022년	2023년	'24. 7월	'24. 8월	'24. 1~8월
수 출	33,160 (28.0)	35,444 (6.9)	33,790 (△4.7)	3,005.6 (7.0)	3,086.5 (8.7)	23,147.7 (4.6)
수 입	26,794 (29.7)	27,065 (1.0)	25,569 (△5.5)	2,159.1 (7.2)	2,176.3 (0.5)	17,062.7 (2.5)
수 지	6,366	8,379	8,221	846.5	910.2	6,085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- 중국의 8월 수출입총액은 전년 동월대비 5.2% 증가한 5,262억 8천만 달러 (약 700조 원), 1~8월 누계 수출입총액·수출액·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3.7%, 4.6%, 2.5% 증가세 기록
 - (수출) 8월 월간 수출 실적은 4개월 연속 3,000억 달러 상회,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전월 대비 약 64억 달러 증가
 - 1~8월 누적 기준 10대 수출품목 중 7개 품목의 수출액이 증가, 반도체는 전년 동기대비 22% 증가하는 등 강세 지속, 의류 및 부자재 등은 약세
 - 1~8월 누적 기준 10대 무역대상국 중 對아세안, 중남미, 중국 홍콩, 베트남 수출액 증가율이 두 자릿수 기록
 - (수입) 8월 수입액은 약 2,176억 달러로 전월(약 2,159억 달러) 대비 증가
 - 1~8월 누적 기준 10대 수입품목 중 6개 품목의 수입액이 증가, 반도체, 컴퓨터 및 주변기기, 동광석 등의 품목이 수입 성장 견인
 - 1~8월 누적 기준 10대 무역대상국 가운데 對한국, 러시아 수입액 증가율이 두 자릿수 기록
- 8월 수출입이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, 향후 단기적으로 수입보다는 수출의 안정적인 증가세가 예상되나 수출입 제약 요인은 상존
 - 중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수입 약세, 수출 강세의 엇갈리는 추세를 보이고 국내 디플레이션 압력이 반영됨
 - 수입 약세는 향후 일부 산업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, 재수출용 부품 수입 비중이 높은 전자산업 분야가 타격받을 가능성도 존재
 - 차이신 연구원은 올해 중국의 연간 수출 증가율을 약 4%로 예상하였으며, 중국 일부 제조업체가 주요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선적을 앞당기면서 단기간 수출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음

< 수출입 실적 및 전망에 대한 국내외 기관 평가 >

구분	기 관	주 요 내 용
중국	 해관총서 (海关总署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~8월 중국 전체 수출입액 중 4대 교역국(지역)인 ASEAN, EU, 미국, 한국의 수출입액 비중은 각각 15.7%, 13%, 11%, 5.3% 차지(위안화 기준) - 동기간 일대일로 협력국과의 수출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7% 증가 - 1~8월 민영기업(비중 55.1%)의 수출입액은 10.5% 증가했으며 국영기업(15.3%), 외국인 투자기업(29.4%)의 수출입액은 각각 0.1% 감소, 1.5% 증가 - 반도체, 자동차 품목의 수출이 상반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강세 - 철광석, 석탄, 천연가스 수입 수량은 증가했으나, 원유 수입 수량은 감소
	 동방증권 (东方证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8월 수출은 증가세 유지, 7월 말 일부 지역의 폭우 등 기상악화 영향으로 컨테이너 선적이 8월 중순으로 연기되었고 이를 수출증가 요인 중 하나로 평가한다는 분석도 있음 - 미국의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 강세는 4분기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, 중국 가전제품 수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- 8월 자동차 수출은 상대적으로 견고한 실적을 보였으며, 1~8월 對EU 자동차 수출이 큰 폭 증가
	 차이신연구원 (财信研究院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계 및 전기제품, 노동 집약 제품이 수출 성장세를 견인하였으며, 수량과 금액 중 수량이 수출 증가에 기여하는 주요인으로 평가됨 - 수입 증가율은 0.5%에 그쳤으며 전년도 높은 기저 및 내수 부진 영향 반영 - 18개 주요 원자재 중 목재, 석탄, 원유, 플라스틱, 구리, 철광석 등 10개 품목의 8월 수입 수량 증가율이 전월(7월) 대비 감소 - 미국이 중국산 일부 상품에 대한 고율관세를 발표한 상황에서 하반기 중국 일부 업체가 선적을 앞당김에 따라 단기 수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 - 금년 연간 수출 증가율은 약 4%로 예상, 하방압력은 전반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나 단기간 수출 점유율은 크게 변동되지 않을 전망
해외	 로이터 (Reuters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8월 수출 증가율은 8.7%로 시장예상치(6.5%) 상회, 전월(7%) 증감률 대비 증가 - 수입 증가율은 0.5%로 시장예상치(2%)를 하회, 전월(7.2%) 증감률 대비 감소 - 중국의 對美 무역 흑자규모는 약 338억 달러로 전월(308억 달러) 대비 증가 - 주요 무역대상국의 對중국 무역 장벽이 고율관세 등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중국 수출업체는 수출 경로 변경, 우회 수출 등 강구책 마련에 주력 - 수출 강세 및 무역 흑자 추세는 중국 3분기 및 연간 경제성장 촉진에 기여 - 중국의 철광석 수입 약세는 중국 건설 부문 수요 약화 등의 영향 반영 - 저조한 수입은 향후 일부 산업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, 특히 재수출용 부품의 수입 비중이 높은 전자산업 분야가 타격을 받을 수 있음
	 South China Morning Post SCMP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의 수입은 여전히 불안정하며, 철강, 농산물, 화장품 등 품목 수입 약세. 전략적 우선순위 품목인 반도체, 하이테크 품목이 수입 성장 견인 -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도 對美 수출은 3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세 기록 - 중국 경제는 약한 국내 수입 수요 및 강력한 수출 경쟁력 등 엇갈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이는 국내 디플레이션 압력을 반영함 - 향후 단기적으로 수입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며, 하반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시 건설이 활성화되고 산업용 상품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
	 THE WALL STREET JOURNAL. WSJ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8월 수출은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, 이는 제조업체가 주요 무역상대국의 관세 조치 시행 전 선적을 서두른 영향 등을 반영함 - 중국의 對美 수출증가율은 7월 8.0%에서 8월 13.4%로 증가 - 미국 경제 약화 및 미중 무역 긴장 고조 상황에서 향후 수출 강세가 지속될 지는 지켜봐야 함

출처: 각 기관 및 언론사 발표 (2024. 9. 12)

3

1~8월 국가(지역) 및 품목별 동향

- (국가별 동향) 1~8월 누계 기준 10대 수출대상국(지역) 가운데 미국(증감률 2.8%), EU(0.7%), ASEAN(10.6%), 중남미(12.8%), 중국 홍콩(10.4%), 베트남(20.5%), 인도(4.2%)로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, 아프리카(△2.1%), 한국(△2.4%), 일본(△5.5%)으로의 수출액은 감소
- 수입의 경우, ASEAN(증감률 3.5%), 중남미(4.3%), 한국(13.3%), 브라질(5.4%), 러시아(3.2%), 아프리카(10.4%)로부터의 수입액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, EU(△4.0%), 일본(△3.8%)으로부터의 수입액은 감소

< 1~8월 중국의 TOP10 수출입 대상국(지역)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수 출			수 입		
	국가별	금액(8월)	1~8월 누계증감률	국가별	금액(8월)	1~8월 누계증감률
1	미 국	473	2.8	*ASEAN	341	3.5
2	*EU	468	0.7	*중남미	240	4.3
3	*ASEAN	466	10.6	*EU	233	△4.0
4	*중남미	274	12.8	중국 대만	202	8.0
5	중국 홍콩	232	10.4	한 국	149	13.3
6	*아프리카	148	△2.1	미 국	134	0.0
7	베트남	134	20.5	일 본	127	△3.8
8	한 국	122	△2.4	브라질	124	5.4
9	일 본	120	△5.5	러시아	114	3.2
10	인 도	114	4.2	*아프리카	104	10.4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*EU, ASEAN, 중남미, 아프리카 등에는 상기 개별국가 실적 포함됨

- (품목별 동향) 1~8월 누계 기준 상위 수출 품목 1~3위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(비중 5.8%), 의류 및 부자재(5.1%), 반도체 및 집적회로(4.3%)의 수출액이 각각 전년 동기대비 9.1% 증가, △1.0% 감소, 22% 증가
- 자동차, 가전제품 누계 수출 수량은 각각 27.5%, 23.6% 증가, 금액은 20%, 14.7% 증가. 강재의 수출 수량은 20.6% 증가했으나 금액은 수출단가 하락 영향으로 △6.8% 감소

-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및 집적회로(비중 15.2%)는 전년 동기대비 수량, 금액 각각 14.8%, 11.5% 증가, 2위 원유(비중 13.5%)는 수량, 금액 각각 △3.1% 감소, 1.7% 증가.
- 철광석 및 정광(4.8%)은 수량, 금액 각각 5.2%, 6.6% 증가, 컴퓨터 및 주변기기(3.3%)의 누계 수입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58.8% 급증. 식량(곡류), 대두, 석탄, 의약재는 수입 단가 하락으로 수량은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감소

< 1~8월 중국의 TOP10 수출 품목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품 목	수량 기준		금액 기준		
		수량 (8월)	1~8월 누계증감률	금액 (8월)	1~8월 누계증감률	비중 (8월)
1	컴퓨터 및 주변기기	-	-	177	9.1	5.8
2	의류 및 부자재	-	-	157	△1.0	5.1
3	반도체 및 집적회로	266억 개	10.5	133	22.0	4.3
4	방직실 및 직물	-	-	122	3.5	4.0
5	자동차(새시 포함)	61만 대	27.5	109	20.0	3.5
6	가전제품	41,882만 대	23.6	90	14.7	2.9
7	플라스틱제품	-	-	85	6.7	2.8
8	휴대폰	6,886만 대	4.6	84	△1.7	2.7
9	자동차부품	-	-	81	5.7	2.6
10	강재	950만 톤	20.6	72	△6.8	2.3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< 1~8월 중국의 TOP10 수입 품목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품 목	수량 기준		금액 기준		
		수량 (8월)	1~8월 누계증감률	금액 (8월)	1~8월 누계증감률	비중 (8월)
1	반도체 및 집적회로	498억 개	14.8	331	11.5	15.2
2	원유	4,910만 톤	△3.1	294	1.7	13.5
3	철광석 및 정광	10,139만 톤	5.2	104	6.6	4.8
4	컴퓨터 및 주변기기	-	-	71	58.8	3.3
5	식량(곡류)	1,498만 톤	6.1	68	△13.2	3.1
6	동광석 및 정광	257만 톤	3.2	66	12.8	3.0
7	대두	1,214만 톤	2.8	60	△14.4	2.7
8	천연가스	1,176만 톤	12.3	58	1.4	2.7
9	석탄 및 갈탄	4,584만 톤	11.8	44	△4.5	2.0
10	의약재 및 약품	44,314 톤	6.4	44	△2.3	2.0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- 8월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는 49.1로 4개월 연속 기준선(50) 하회, 생산자물가지수(PPi)는 전년 동월대비 $\Delta 1.8\%$ 하락,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0.6% 상승
 - 세부 PMI 지표 중 생산지수, 신규 주문지수, 원자재 재고지수, 공급망 배송지수 등이 모두 기준선(50)을 하회하면서 제조업 경기 수축 지속
 - PPI($\Delta 1.8\%$)는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(23개월 연속), 건축자재 및 비금속 원자재, 식품 가공, 석유 및 가스 산업 공장 출하 가격 하락 영향 반영
 - CPI(0.6%)는 6개월째 1% 미만의 증가세 지속, 세부적으로 과일 4.1% , 중의 약 2.1% 상승, 식용유 $\Delta 4.1\%$, 교통수단 연료 $\Delta 2.7\%$ 하락

< 최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>

구 분	2021년	2022년	2023년	'24.상반기	'24.7월	'24.8월	
경제성장률(%)	8.4	3.0	5.2	5.0	-	-	
소매판매 증감률(%)	12.5	$\Delta 0.2$	7.2	3.7	2.7	2.1	
고정자산투자 증감률(누계, %)	4.9	5.1	3.0	3.9	3.6	3.4	
산업생산 증감률(%)	10.4	3.4	4.6	6.0	5.1	4.5	
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(%)	50.3	47.0	49.0	49.5	49.4	49.1	
소비자 물가지수 CPI(%)	0.9	2.0	0.2	0.1	0.5	0.6	
생산자 물가지수 PPI(%)	8.1	4.1	$\Delta 3.0$	$\Delta 2.1$	$\Delta 0.8$	$\Delta 1.8$	
실업률(기말, %)	5.1	5.5	5.2	5.0	5.2	5.3	
외국인직접투자(누계, 억 위안, %)	11,494 (14.9)	12,327 (6.3)	11,339 ($\Delta 8.0$)	4,989 ($\Delta 29.1$)	-	-	
외환보유액(억 \$, 기말)	32,502	31,277	32,380	32,224	32,564	32,882	
평균 환율(위안/달러)	6.4512	6.7208	7.0423	7.1053	7.1316	-	
한국의 대중국 무역 (억 \$, %) *한국 통계기준	수 출	1,629 (22.9)	1,558 ($\Delta 4.4$)	1,248 ($\Delta 19.9$)	*107(6월) (1.7)	114 (14.9)	113.5 (7.9)
	수 입	1,386 (27.3)	1,546 (11.5)	1,429 ($\Delta 7.6$)	*109(6월) ($\Delta 7.3$)	119 (6.9)	114.8 ($\Delta 1.8$)
	수 지	243	12	$\Delta 180$	$\Delta 2.4$	$\Delta 5.3$	$\Delta 1.3$

출처: 중국 국가통계국, 중국 상무부, 중국 인민은행,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무역협회

주: *8월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데이터는 잠정치임